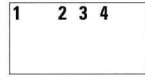




1 독서품을 정착시킨 김동명 도서실장. 2 민사고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독서품, 심신수련품, 영어품, 봉사품, 한자품 등 민족6품을 이수해야 한다. 3 민사고는 SK텔레콤의 지원으로 도서관을 리모델링 할 수 있었다. 4 민사고는 2만여 종의 도서와 2,300종의 멀티미디어 자료가 비치되어 있다.



# 독서대상 대통령상 받은 민족사관고등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교장 이돈희, 이하 민사고)는 다르다. 6년간 국제반 졸업생 62명 전원 외국 명문대학 합격, 2002년 국제반 졸업생 SAT 평균점수 1,440점(1,600점 만점), 국내 유일의 미국 대학교과목 선수 강의(AP과정) 공인 학교, 100퍼센트에 가까운 대학 진학률. 특히 올해에는 2년 만에 조기 졸업한 박원희(17) 양이 하버드와 프린스턴, 코넬 등 미국 10개 대학에 동시 합격해 화제의 인물이 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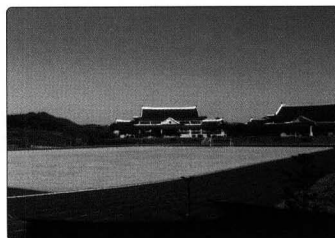
학생 전원 기숙사 생활, 학생(280명)당 교과 교사(55명) 5.1 대 1, 교실이 아니라 연구자료와 학습자료가 구비된 선생님의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수업(민사고에는 교무실과 교실이 없다), 국어 국사 한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수업의 영어진행 등 선진적인 운영방식이 이러한 성과의 밑바탕이 됐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단지 똑똑한 학생이 아니라 “민족정신과 세계적 안목을 겸비한, 창의적이고 겸손한 글로벌 리더의 양성”이라는 학교 설립취지에 걸맞은 학생들이 배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민사고만의 독서교육이 있었다는 사실을 빼놓아선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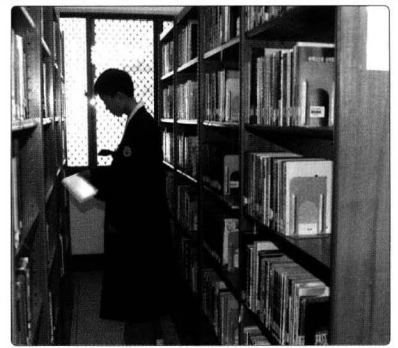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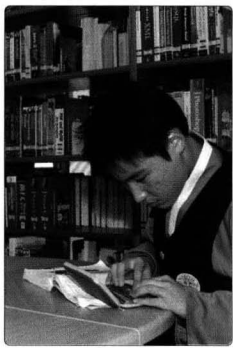
독서는 민사고를 졸업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민족6품(독서품, 심신수련품, 영어품, 예술품, 봉사품, 한자품) 중의 하나로 1999년 김동명(35) 사서(현 도서실장)가 오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각 교사들이 종수에 제한 없이 학생들이 읽어야 할 도서목록을 사서에게 제출하면 사서는 예산에 맞춰 신청한 책들을 구입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도서목록은 유명무실했다.

“학교에서 독서교육이 안 되는 이유는 교사들의 참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민사고 선생님들도 처음엔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나오다보니 선생님들도 학업성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책을 읽고 또 학생들에게 읽게 한다는 것을 시간낭비로 여겼습니다.”



● 스포츠별 리더가 되려면 책을 읽어야



김 도서실장이 생각하기에 독서는 결코 학업과 동떨어진 게 아니었다. 책 읽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어른스러운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라는 공공의 장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공질서 의식이 높다. 또한 독서를 통해 학업성취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리더 양성'이라는 학교의 설립취지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교육이었다. 김 도서실장은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각 과 선생님들의 참여가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들의 경쟁을 유도하기 시작했다.

먼저 과별로 똑같이 한 해 도서구입 예산을 배정하고 필요한 도서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신청도서가 적은 과는 다음 해에 예산을 삭감하고 더 많은 책을 신청한 과에는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자 선생님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다. 많이 받는 과는 900만 원, 적게 받는 과는 240만 원 정도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김 도서실장의 적극적인 요구와 홍보로 독서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해 나가기 시작했다. 학생들에게도 단순히 추천도서목록이 아니라 필독서목록을 제시했다.

"각 과에서 올라온 추천도서목록을 바탕으로 수석교사, 사서교사, 교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통해 1년 동안 학생들이 읽어야 할 책 30권을 선정합니다. 물론 한 권씩 읽을 때마다 리포트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적에도 반영이 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도서실장을 비롯해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합심해 큰일을 해냈다. 1999년 개관 이래 지속적인 장서 확충과 교사와 학생의 이용으로 도서관은 학교에서 가장 이용이 많은 장소가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개선이 필요했다. 가장 좋은 것은 별도의 도서관을 짓는 것이지만 도서관 건립은 학교로서도 중장기 계획에 속해 있었다. 우선은 리모델링으로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다. 때마침 SK텔레콤에서 2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 매주 1개 학교씩 총 5개 학교의 도서관을 리모델링해 주는 '신난다! 신퓏한 학교 만들기'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실명으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학교가 선정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첫 번째 리모델링 대상 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교생이 200명인데 4,000명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만큼 도서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당시 이벤트에는 전국의 3,000여 중·고교가 응모하고 15만여 명이 참가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또한 '책키북키학교' 에도 선정돼 희망도서 구입비와 프로젝트 운영보조비를 지원받았다. '책키북키학교'는 중·고등학생들의 책읽기를 장려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한 행사로 청소년들이 즐겁게 책을 펼칠 수 있는 책읽기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신청하면 활동운영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파스퇴르유업으로부터 연간 30억 원 이상의 지원을 받아 왔던 학교가 이처럼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응모한 데는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다. 올 6월 파스퇴르유업이 한국야쿠르트에 매각되면서 지원금도 딱 끊겨 '독자생존'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보통학교 같으면 일단 입시와는 상관없이 보이는 도서구입비부터 줄였겠지만 민사고는 그러지 않았다. 올해에 책정된 5,800만 원도 무엇보다 먼저 도서관의 예산을 배려한 결과였다.

"물론 예전에 비해 여유가 없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도서관 운영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서가 있고 없고의 차이일 것입니다. 사서의 역할은 도서관을 보다 잘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지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도움이 필요한데 책임감을 가지고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서입니다."

김 실장은 학교의 사정으로 줄어든 예산을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끌어다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오히려 위기는 도서관에 대한 학교와 학생들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김동명 도서실장을 비롯해 2명이 운영하는 민사고 도서관에는 2만여 종의 도서와 2,300종의 멀티미디어 도서가 비치되어 있다. 이 중 5,300권은 영미에서 수입한 원서가 차지한다. 해마다 도서구입비의 70퍼센트가 원서구입에 들어간다. 올해의 경우 도서구입으로 4,800만 원이 책정됐고 컴퓨터 등 물품구입비가 1,000만 원이 책정됐다. **▶▶▶**

취재 | 신동섭기자 · 사진 | 박신우기자